

20대 여성의 신체 만족도 및 이상형(理想型)에 관한 연구 - 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

정재은 · 남윤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Body Cathexis and Ideal Body Shape of 18 to 25 Year-Old Women

Jae Eun Jung · Yun Ja Na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11. 1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real body size and ideal body shape by considering the relations of betwee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consciousness of body cathexis and real body size, and to understand change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at body part and ideal body shap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by comparing the date taken at 1997 to that taken at 1992.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42 and 201 female college students aged from 18 to 25. Body measurements and survey were taken from April to June, 1997 and May to June, 1992.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OVA, duncan test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subjects tended to be satisfied with long and slim limbs, slim trunk, and preferred to be tall in height and light in weight. But, exceptionally, they tended to be unsatisfied with small bust as well as big one.
- (2) The subjects want to be slimmer lower body than upper body.
- (3) The subject of 1997 was more satisfied with tall height, light weight, slim limbs and narrow shoulder than those of 1992. Also, the subjects of 1997 want to be taller in height than the subjects of 1992.
- (4) The ideal body shape of the subject of 1997 was slim body while that of the subject of 1992 was big bust and wasp waist.
- (5) The subject of 1997 was more satisfied with leaner body than that of 1992.

Key words: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body cathexis, the degree of consciousness of body cathexis, ideal body shape, the degree of leanness/obesity;

신체만족도, 신체인식도, 신체이상형, 신체수척/비만

* 본 논문은 1998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 서 론

의복은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에 잘 맞고 심리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의복 착용자가 의복을 통해 얻는 심리적 만족도는 신체적 만족도와 관련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체적 만족도는 체형과 관련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정재은, 1993). 이에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 및 체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영운(1981), 이옥연(1984), 植竹(1988), Labat Delong(1990), 김용숙(1990), Shim(1991), 구자명·이명희(1994), 고애란·김양진(1996) 등은 신체 만족도와 의복행동간에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임숙자(1986), 김양진·강혜원(1992)은 신체의 결함을 의복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김정숙(1984)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선택하므로써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Douty Brannon(1984), Lennon(1988)은 마른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Clayton 등(1987)은 의복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의복 유행성 지각이 다름을 밝혔으며 정삼호(1988), 이영주 등(1997), 이영주(1998)는 체형을 고려한 의복디자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여성의 마른 체형이 선호되고 신체 만족도와 의복선호간에 관련이 있으며, 의복 착용자는 의복을 통해 신체적 외모를 보완하여 자신의 이상형(理想型)을 표현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심리학적 입장에서 행하여진 연구로 신체의 종합적인 만족도, 선호와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취급하고 있을 뿐 신체 각 부위의 만족도, 인식도와 실제 체형에 관한 자세한 고찰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인식도와 실제 측정치와의 관계 및 신체 이상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류기주(1992)는 이상적으로 여기는 신체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 이상형에 따라 의복의 형태가 다르다고 하면서 고대 이집트에서 낭만주의 시대까지를 대상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의복 착용자가 의복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신

체 이상형의 시대적 변화를 현대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신체 이상형(理想型)에 대한 설문지 조사와 신체 측정을 통하여 신체 크기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를 객관적인 척도로 고찰하여, 신체 이상형과 실제 체형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 자료와 1992년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대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이상형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복 착용자에게 심리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의복설계 및 선호 체형을 고려한 유행경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항목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8세에서 25세의 여대생 542명을 대상으로 서울, 인천, 청주, 원주, 나주, 전주, 부산지역에서 1997년 4월에서 6월까지 본 연구자가 실시한 신체 측정자료와 설문지 조사자료이다. 시대에 따른 비교자료는 18세에서 25세의 여대생 195명을 대상으로 서울, 인천지역에서 1992년 5월에서 6월에 본 연구자가 실시한 신체 측정자료와 설문지 조사자료이다.

1992년도 조사자료와 1997년도 조사자료의 설문지 항목, 신체측정 항목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는 자신의 체형에 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44항목(5점척도)과 자신이 이상적(理想的)으로 인식하는 신체치수 조사를 위한 5항목(치수기입), 신체(전신, 상반신, 하반신)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한 3항목(5점척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선택한 항목은 성인 여성의 체형과악과 의복구성에 필요한 항목으로서 높이 3항목, 둘레 12항목, 길이 8항목, 피하지방두께 2항목, 몸무게 1항목 등 총 26항목이었다. 측정방법은 R. Martin의 인체측정방법과 공업진흥청의 KS A 7003(인체측정용어) 및 KS A 7004(인체측정방법)에 설정된 측정기준선과 기준점에 준하였다.

2. 분석방법

설문지 자료와 측정 자료는 SPSS PC* 패키지를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1)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 및 실제 측정치와 만족도와 관계 살펴보기 위해 평균 및 상호간의 상관계수를 구하고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피험자의 신체 크기에 대한 이상치와 실제 측정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체이상치와 실제 측정치간의 유의차 검증을 위하여 paired t-test(쌍체비교)를 실시하였다.

(2) 본 연구자료와 1992년도 측정 자료/설문지 자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분석 및 두 집단간의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신체 만족도에 관한 고찰

1)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와 의 관계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평정 평균 및 상호간의 상관계수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 항목에서는 '작다, 가늘다, 짧다'라는 크기가 작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에 5점척도 중 1점을 부여하고 반대로 '크다, 굵다, 길다'라는 크기가 크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에 5점척도 중 5점을 부여하였다. 평균이 대체로 2.5와 3.5사이에 분포하고 있어서 신체 각 부위의 크기를 보통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엉덩이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등 신체 부위의 굵기를 나타내는 몇 항목의 평균이 3.5이상으로, 허리 아래 하반신의 굵기에 관해서는 굵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는, 불만족에 1점, 만족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손목둘레, 팔길이를 제외하고 모두 3이하(1.69~2.99)의 값을 나타내어서 대부분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굵다고 평가한 엉덩이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에서 1.96이하의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부위에 대해 강한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신체의 굵기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와 의 관계를 보면 가슴둘레를 제외하고는 부적(負的)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작다, 가볍다 등 작은 것에 만족

<표 1>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평균 및 상호 간의 상관계수

신체부위	평 균		상관계수	신체부위	평 균		상관계수
	크기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크기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가슴둘레	2.75	2.28	0.099	등길이	3.15	2.75	-0.345
허리둘레	3.26	2.34	-0.690	엉덩이길이	3.34	2.52	-0.545
엉덩이둘레	3.66	1.96	-0.503	어깨너비	3.17	2.61	-0.556
목둘레	2.89	2.93	-0.596	머리크기	3.02	2.78	-0.689
위팔둘레	3.43	2.25	-0.692	손크기	2.99	2.99	-0.161
아래팔둘레	2.88	2.71	-0.559	발크기	3.04	2.99	-0.223
손목둘레	2.55	3.07	-0.572	팔길이	3.19	3.07	0.274
넓적다리둘레	3.97	1.69	-0.606	다리길이	2.88	2.31	0.649
장딴지둘레	3.75	1.87	-0.625	몸통길이	3.04	2.39	0.203
발목둘레	3.09	2.58	-0.671	키	2.78	2.17	0.697
몸통둘레	3.24	2.29	-0.308	몸무게	3.41	1.98	-0.589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0.6이상의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은 허리둘레, 위팔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였다. 또한, 다른 항목과는 달리 매우 낮은 정적(正的) 상관을 나타내는 가슴둘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분할표분석을 한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가슴둘레의 경우는 다른 둘레항목과는 달리 작은 경우와 큰 경우 모두에서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신체의 길이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키, 다리길이는 0.6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을, 머리크기, 등길이, 엉덩이길이, 어깨너비는 중정도의 부적 상관(-0.345~-0.689)을 나타내었으며 팔길이는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손, 발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키가 크고 사지가 길고 몸통은 짧으며, 머리와 손, 발이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신체 각 부위의 실제 측정치와 만족도와의 관계
만족도 조사 항목 중 측정을 실시한 15항목에 대해 실제 측정치와 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표 3).

신체의 굵기에 대한 항목을 보면 가슴둘레를 제

외한 모든 항목에서 0.3에서 0.6의 중정도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서 신체가 마르고 몸무게가 가벼운 것에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 항목에서 만족도는 실제 측정치보다는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만족도는 실제 측정치보다는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더 관련됨을 나타낸다.

신체의 길이에 대한 항목을 보면, 키에서는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나 등길이, 엉덩이길이 항목에서는 상관이 극히 낮게 나타나 이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실제 측정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와의 관계

신체를 전신, 상반신, 하반신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수척과 비만에 대한 인식도 상호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표 4). 신체의 전신, 상반신, 하반신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 항목에서는 '말랐다'에 5점척도 중 1점을 부여하고 반대로 '뚱뚱하다'에 5점척도 중 5점을 부여하였다. 전신에 대한 인식도는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보다 상반신에 대한 인식도보다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서 자신의 신체가 뚱

<표 2> 가슴둘레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간의 분할표 분석결과

인식도 점수	만족도 점수	만족도					계
		1. 불만스럽다.	2. 약간 불만스럽다.	3. 그저그렇다.	4. 약간 만족스럽다.	5. 만족스럽다.	
1. 작다.		47	20	4	0	1	72
2.		25	57	35	2	7	126
3.		8	43	92	20	6	169
4.		20	39	23	7	2	91
5. 크다.		25	3	1	0	0	29
계		125	162	155	29	16	487

<표 3> 신체 각 부위의 실제 측정치와 만족도와의 상관계수

신체부위	상관계수	신체부위	상관계수	신체부위	상관계수
가슴둘레	0.002	넓적다리둘레	-0.382	어깨너비	-0.233
허리둘레	-0.442	장딴지둘레	-0.388	팔길이	0.208
엉덩이둘레	-0.335	발목둘레	-0.353	다리길이	0.439
위팔둘레	-0.462	등길이	-0.084	키	0.655
손목둘레	-0.355	엉덩이길이	0.037	몸무게	-0.462

〈표 4〉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 간의 상관계수

신체부위	전신	상반신	하반신
전신	1.000		
상반신	0.768	1.000	
하반신	0.671	0.396	1.000

뚱한가 아닌가를 평가할 때 하반신보다는 상반신의 크기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상반신과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는 중정도의 상관(0.396)을 나타내었다.

전신, 상반신, 하반신의 수척/비만에 대해 형성하는 인식도 각각에 대한 피험자군의 신체 만족도 평균을 <표 5>에 나타내었다. 자신의 신체를 '말랐다'와 '약간 말랐다'라고 평가한 피험자군이 다른 피험자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신체에 대하여 만족을 나타내었고 '뚱뚱하다'라고 평가한 피험자군이 다른 피험자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신체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이는 피험자들이 마른 신체에 대하여 만족함을 나타낸다.

4) 각 피험자의 신체에 대한 이상치(理想値)와 실제 측정치와의 관계

각 피험자의 신체 크기에 대한 이상치와 실제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paired t-test 분석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개인의 키, 가슴둘레에 대한 이상치의 평균은 실제 측정치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고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에 대한 이상치의 평균은 실제 측정치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앞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피험자들이 신체 굵기 중 가슴둘레를 제외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작기를 원하고, 몸무게는 가볍기를, 키는 크기를 원하였다.

2. 본 연구자료와 1992년도 조사자료와의 비교분석

1) 신체 측정자료에 대한 비교분석

본 연구집단과 1992년도 집단과의 비교를 위하여 1992년 측정집단(A집단)과 1997년 측정집단(B집단) 간의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 각각의 신체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t-test 결과는 <표 7>에 있다.

두 집단의 신체 측정치를 비교해 보면, 위팔둘레, 최소발목둘레, 등길이, 소매길이, 머리길이의 항목에

〈표 5〉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에 따른 피험자군의 만족도 평균 및 일원분산분석, Duncan test 결과

신체부위	수척/비만 인식도	말랐다	약간 말랐다.	보통이다	약간 뚱뚱하다.	뚱뚱하다.	분산분석 결과
전신		2.88(A)	2.86(A)	2.62(B)	2.24(C)	1.79(D)	61.888***
상반신		2.99(A)	3.03(A)	2.77(B)	2.40(C)	1.95(D)	61.147***
하반신		3.04(A)	2.87(A)	2.58(B)	2.09(C)	1.60(D)	80.485***

*** significant difference(p≤0.001)

+ 알파벳은 Duncan 검정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 (A>B>C>D)

〈표 6〉 각 피험자의 이상치와 실제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paired t-test 결과

신체부위	실제 측정치		개인의 이상치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cm)	159.93	4.79	166.46	2.93	-33.192***
가슴둘레(cm)	81.87	5.30	84.41	3.76	-7.913***
허리둘레(cm)	65.36	4.54	63.12	2.83	10.521***
엉덩이둘레(cm)	90.75	3.85	86.97	4.28	14.288***
몸무게(kg)	51.89	5.62	49.16	3.09	12.572***

*** significant difference(p≤0.001)

서 B집단의 측정치가 A집단의 측정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고, 머리둘레, 진동둘레, 손목둘레, 장딴지둘레, 어깨끝점사이길이, 상완피하지방두께의 항목에서 B집단의 측정치가 A집단의 측정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대 여성의 5년간의 신체 측정치 변화를 살펴보면, 위팔둘레, 최소발목둘레는 굵어졌으며 등길이, 소매길이는 길어진 반면, 머리둘레, 진동둘레, 장딴지둘레는 작아졌고 어깨는 좁아졌다.

그러나, 의복설계상 중요한 항목인 키, 가슴둘레,

밑가슴둘레, 뒤통, 앞똥,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앞뒤 밑위길이, 넓적다리둘레의 항목과 몸무게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 주요 신체항목에서 5년 정도의 연도 차이에서는 신체 치수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2) 설문지자료에 대한 비교분석

① 신체 만족도의 비교분석

1992년도 조사집단(A집단)과 1997년도 조사집단(B집단) 간의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평균과 t-test 결과 및 서로간의 상관

〈표 7〉 두 집단 각각의 신체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t-test 결과

(단위: cm)

측정 부위	A집단 ¹⁾ (n=195)		B집단 ²⁾ (n=542)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160.01	5.04	159.93	4.80	0.203
목뒤높이	135.11	4.56	135.77	4.44	-1.670
허리뒤높이	97.91	3.83	97.32	3.86	1.822
머리둘레	55.89	1.30	55.48	1.40	3.544***
목밑둘레	38.05	2.12	38.09	1.86	-0.290
가슴둘레	81.13	4.80	81.87	5.30	-1.701
밑가슴둘레	72.23	4.06	72.80	4.36	-1.587
허리둘레	64.71	4.36	65.36	4.54	-1.749
엉덩이둘레	90.14	4.14	90.76	3.85	-1.862
진동둘레	37.44	2.75	36.79	2.14	3.007**
위팔둘레	25.72	2.23	26.09	2.24	-1.969*
손목둘레	14.91	0.91	14.68	0.70	3.210***
넓적다리둘레	52.79	3.78	52.84	3.63	-0.165
장딴지둘레	34.88	2.23	34.23	2.50	3.564***
최소발목둘레	20.64	1.09	21.34	1.31	-7.310***
등길이	38.50	2.16	39.74	1.91	-7.534***
어깨끝점사이길이	38.42	2.00	37.37	2.06	6.185***
뒤통	36.44	2.20	36.67	2.17	-1.279
앞똥	31.55	1.65	31.65	1.67	-0.696
소매길이	53.00	2.43	54.40	2.35	-7.081***
앞뒤밑위길이	67.90	3.66	67.82	3.42	0.251
발길이	23.12	0.89	23.30	0.97	-2.330*
등피하지방두께	10.06	2.94	9.97	2.78	0.351
상완피하지방두께	11.42	3.02	10.84	2.49	2.277**
머리길이	22.13	1.06	22.55	1.06	-4.763***
몸무게(kg)	51.94	5.50	51.89	5.62	0.111

* significant difference ($p \leq 0.05$) ** significant difference ($p \leq 0.01$)

*** significant difference ($p \leq 0.001$)

¹⁾ 1992년도 측정집단 ²⁾ 1997년도 측정집단

계수를 <표 8>에 나타내었다. 두 집단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평균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대체로 신체 각 부위의 크기를 보통이라 인식하고 있으나, 허리 아래 하반신의 굵기에 관해서는 굵다고 평가하였고 이들 신체부위에 대하여 강한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또한, 두 집단간에 상관의 정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경향은 같다. 상관계수에서 두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어깨너비, 다리길이로 B집단이 A집단에 비하여 이들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와 인식도간에 더 큰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두 집단간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신체부위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에 대한 인식도의 비교에서는 키와 발크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B집단이 A집단보다 목,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발목둘레, 몸통둘레, 키, 몸무게의 항목에서 유의하게 불만족하였다. 이는 B집단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의 기준이 A집단에 비하여 변화하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키의 경우는 실제 측정치 상으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인식도에서는 B집단이 A집단보다 유의하게 작게 인식하였고 이에 대하여 큰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그밖에 넓적다리둘레, 몸무게는 실제 측정치와 인식도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만족도에서는 B집단이 A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만족을 나타내었고 머리둘레, 손목둘레, 어깨너비는 B집단의 실제 측정치가 A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인식도나 만족도는 변화가 없었다. 아래팔둘레

<표 8> 두 집단 각각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평균과 t-test 결과

신체부위	크기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인식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계수	
	A집단 ¹⁾	B집단 ²⁾	t 값	A집단 ¹⁾	B집단 ²⁾	t 값	A집단 ¹⁾	B집단 ²⁾
가슴둘레	2.68	2.75	-0.644	2.46	2.28	1.767	0.413	0.099
허리둘레	3.12	3.26	-1.374	2.58	2.34	2.254*	-0.807	-0.690
엉덩이둘레	3.76	3.66	1.124	2.12	1.96	1.618	-0.574	-0.503
목둘레	2.96	2.89	0.909	3.14	2.93	2.277*	-0.307	-0.596
위팔둘레	3.31	3.43	-1.101	2.51	2.25	2.528*	-0.600	-0.692
아래팔둘레	2.74	2.88	-1.494	2.96	2.71	2.680**	-0.437	-0.559
손목둘레	2.62	2.55	0.717	3.33	3.07	2.735**	-0.371	-0.572
넓적다리둘레	3.84	3.97	-1.338	1.98	1.69	3.112**	-0.721	-0.606
장딴지둘레	3.63	3.75	-1.258	2.11	1.87	2.247*	-0.767	-0.625
발목둘레	2.97	3.09	-1.235	2.80	2.58	2.211*	-0.700	-0.671
몸통둘레	3.20	3.24	-0.587	2.50	2.29	2.412*	-0.470	-0.308
어깨너비	3.16	3.17	-0.130	2.68	2.61	0.685	-0.068	-0.556
머리크기	3.13	3.02	1.318	2.69	2.78	-0.847	-0.613	-0.689
손크기	3.16	2.99	1.482	3.10	2.99	1.005	-0.054	-0.161
발크기	3.26	3.04	2.039*	2.78	2.99	-1.167*	-0.264	-0.223
팔길이	3.33	3.19	1.772	2.76	3.07	-3.422***	0.226	0.274
다리길이	3.02	2.88	1.752	2.11	2.31	-1.831	0.193	0.649
몸통길이	3.13	3.04	1.148	2.50	2.39	1.266	0.059	0.203
키	3.01	2.78	2.200*	2.82	2.17	5.050***	0.742	0.697
몸무게	3.42	3.41	0.082	2.33	1.98	3.369***	-0.718	-0.589

* significant difference(p≤0.05) ** significant difference(p≤0.01)

*** significant difference(p≤0.001)

¹⁾ 1992년도 조사집단 ²⁾ 1997년도 조사집단

에 대한 인식도는 두 집단간에 변화가 없으나 B집단이 A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내었다. 또한, 위팔둘레, 발목둘레는 B집단의 실제 측정치가 A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인식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단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신체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이는 이들 신체부위에 대하여 B집단이 A집단보다 더 작고 가볍고 가벼운 것에 만족함 나타내었다. 장딴지둘레는 B집단의 실제 측정치가 A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만족도에서는 더 큰 불만족을 나타내어 이 부위가 특히 더 작기를 원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B집단(1997년도 조사집단)이 A집단(1992년도 조사집단)에 비하여 키가 더 크고 몸무게가 더 가벼우며, 머리둘레와 사지의 둘레가 더 가늘며 어깨가 좁은 것에 만족함을 알 수 있다.

② 신체 이상치에 대한 비교

1992년도 조사집단(A집단)과 1997년도 조사집단(B집단)의 신체 이상(理想)치수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결과를 <표 9>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1997년도 조사집단(B집단)이 1992년도 조

사집단(A집단)에 비하여, 키와 허리둘레의 이상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가슴둘레의 이상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1992년에 비하여 최근의 이상형(理想型)은 가슴이 크고 허리가 가는 체형보다는 좀더 키가 크고 슬림(slim)한 체형임을 알 수 있다.

③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대한 비교

1992년도 조사집단(A집단)과 1997년도 조사집단(B집단) 간의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결과는 <표 10>에 있다. 1997년도 조사집단(B집단)이 상반신에 대하여 1992년도 조사집단(A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뚱뚱하다고 평가하였다.

1992년도 조사집단(A집단)과 1997년도 조사집단(B집단)의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해 형성하는 인식도 각각에 대한 피험자군의 신체 만족도 평균 및 일원분산분석, Duncan test 결과는 <표 11>과 <표 5>에 있다. 1992년도 조사집단(A집단)에서는 전신과 상반신에 대하여 '말랐다', '약간 말랐다', '보통이다' 라고 평가한 피험자군이 다른 피험자군에 비

<표 9> 두 집단간의 이상(理想)치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t-test 결과

신체부위	A집단 ¹⁾ 의 이상치수		B집단 ¹⁾ 의 이상치수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cm)	164.75	2.69	166.46	2.93	-6.226***
가슴둘레(cm)	85.26	3.84	84.41	3.76	2.205**
허리둘레(cm)	62.03	2.64	63.12	2.83	-3.867***
엉덩이둘레(cm)	87.41	4.38	86.97	4.28	0.966
몸무게(kg)	49.57	2.85	49.16	3.09	1.355

* significant difference(p≤0.05) ** significant difference(p≤0.01)

*** significant difference(p≤0.001)

¹⁾ 1992년도 조사집단 ²⁾ 1997조사 측정집단

<표 10> 두 집단간의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결과

신체부위	A집단 ¹⁾ 의 이상치수		B집단 ¹⁾ 의 이상치수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신	3.19	0.95	3.36	0.89	-1.810
상반신	2.85	1.12	3.14	1.07	-2.594**
하반신	3.70	1.00	3.84	0.88	-1.543

** significant difference(p≤0.01)

¹⁾ 1992년도 조사집단 ²⁾ 1997조사 측정집단

〈표 11〉 1992년도 조사집단(A집단)의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에 따른 피험자군의 만족도 평균 및 일원분산분석, duncan test 결과

신체부위	수척/비만 인식도	말랐다	약간 말랐다.	보통이다	약간 뚱뚱하다.	뚱뚱하다.	분산분석 결과
전 신		2.70(A)	2.90(A)	2.81(A)	2.30(B)	1.92(C)	13.924***
상반신		2.78(A)	3.08(A)	3.02(A)	2.40(B)	1.82(C)	16.262***
하반신		3.33(A)	3.13(A)	2.66(B)	2.18(C)	1.50(D)	37.286***

*** significant difference($p \leq 0.001$)

+ 알파벳은 Duncan 검정 결과 $P \leq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 (A>B>C>D)

〈표 12〉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에 따른 피험자군의 만족도 평균 및 t-test 결과

신체부위	수척/비만 인식도	말랐다	약간 말랐다.	보통이다	약간 뚱뚱하다.	뚱뚱하다.
A집단(1992년도 조사집단)						
전 신		2.70	2.90	2.81	2.30	1.92
상반신		2.78	3.08	3.02	2.40	1.82
하반신		3.33	3.13	2.66	2.18	1.50
B집단(1997년도 조사집단)						
전 신		2.88	2.86	2.62	2.24	1.79
상반신		2.99	3.03	2.77	2.40	1.95
하반신		3.04	2.87	2.58	2.09	1.60
두 집단 간의 t-test 결과						
전 신		-0.591	0.361	2.789**	0.978	0.845
상반신		-1.170	0.436	3.714***	0.071	-0.811
하반신		0.425	1.467	0.956	1.220	-1.209

*** significant difference($p \leq 0.001$)

+ 알파벳은 Duncan 검정 결과 $P \leq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 (A>B>C>D)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신체에 대하여 만족을 나타내었고(표 11), 1997년도 조사집단(B집단)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말랐다'와 '약간 말랐다'라고 평가한 피험자군이 다른 피험자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신체에 대하여 만족을 나타내었다(표 5). 다음으로 1992년도 조사집단(A집단)과 1997년도 조사집단(B집단) 간의 수척/비만에 대해 형성하는 인식도 각각에 대한 피험자군의 신체 만족도 평균 및 t-test결과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전신과 상반신에 대하여 '보통이다'라고 평가한 피험자군에서 1997년도 조사집단(B집단)의 만족도 평균이 1992년도 조사집단(A집단)의 만족도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1997년도 조사집단(B집단)이 1992년도 조사집단(A집단)보다 자신의 신체를 더 말랐다고 생각할 때에 더 큰 만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제언

본 논문은 신체 만족도, 인식도 및 이상치수에 대한 설문지 조사와 신체측정을 통해 신체 크기에 대한 인식도 및 실제치수와 신체 만족도와 의 관계를 객관적인 척도로 고찰하여 이상형(理想型)과 실제 체형과의 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1992년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대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이상형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 4월에서 1997년 8월 까지 실시된 18세에서 25세의 여성 542명의 측정 자료와 설문지 자료이며, 시대에 따른 비교자료는 1992년 5월에서 6월까지 실시된 여성 195명의 측정 자료와 설문지 자료다. 자료는 상관관계분석, t-test 분석, 분산분석, duncan test 분석, 분할표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집단에 대한 신체 만족도, 인식도 및 이상형과 실제체형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집단의 피험자들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가볍고, 사지가 길며 신체가 마른 것에 만족하였는데 엉덩이둘레, 사지, 몸무게에서 그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가슴둘레는 예외로 작은 것과 큰 것 모두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또한, 실제 신체 측정치보다는 신체에 대한 인식도가 신체 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2. 전신에 대한 인식도는 하반신에 대한 인식보다 상반신에 대한 인식도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연구집단(1997년도 조사집단)과 비교집단(1992년도 조사집단)과의 신체 만족도, 인식도 및 이상형과 실제체형에 관한 비교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몸무게 등 주요 신체측정치 및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연구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1997년도 조사집단이 1992년도 조사집단에 비하여 키가 더 크고 몸무게가 더 가벼우며, 사지의 둘레가 더 가늘고 어깨가 좁은 것에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4. 신체 주요부위의 이상치수의 비교에서, 1992년도 조사집단에 비하여, 1997년도 조사집단의 이상형은 가슴이 크고 허리가 가는 체형보다는, 좀 더 키가 크고 슬림(slim)한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992년과 1997년의 유행스타일을 반영한 결과인데, 1992년에는 어깨에 패드가 두껍게 들어가고 가는 허

리가 강조되는 스타일이 유행되었던 반면, 1997년에는 어깨 패드를 거의 넣지 않은 슬림한 롱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가는 스타일이 유행되었다.

5. 1992년도 조사집단에 비하여 1997년도 조사집단이 자신의 신체를 더 말랐다고 생각할 때에 더 큰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는, 몸에 잘 맞는 의복을 착용하고자 할뿐만 아니라 의복 착용을 통해 신체적 외모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복 착용자의 심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복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이상의 결과는 의복 착용자의 선호 체형을 고려한 유행경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대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결과를 다른 연령층에 적용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신체 만족도 및 이상형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고애란·김양진,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1996.
- 2) 구자명·이명희,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153-164, 1994.
- 3) 김양진·강혜원,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09, 1992.
- 4) 김용숙,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77-189, 1990.
- 5) 김정숙,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 디자인 선호간의 상관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6) 류기주,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한국의류학회지, 16(4), 357-369, 1992.
- 7) 이영륜,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881.

- 8) 이영주, 슬랙스 제작을 위한 성인 여성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분석—30세에서 49세까지— 한국의류학회지, 22(1), 127—138, 1998.
- 9) 이영주·박옥련·이정옥, 슬랙스 제작을 위한 20대 여성의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분석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368—382, 1997.
- 10) 이옥연, 비만 학생과 표준체중 학생의 건강 통제위성 격과 신체상에 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11) 임숙자, 의복행동과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 및 체격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2), 37—50, 1986.
- 12) 정재은,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48—458, 1993. 13) 植竹桃子, 衣服設計の立場からみた肥りやせの意識, 日本家政學會誌, 39(7), 711—723, 1988.
- 14) Clayton, R., Lennon, S. J. Larkin, J., Perceived Fashionability of A Garment As Inferred From The Age and Body Type of The Weare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4), 237—246, 1987.
- 15) Douty, H. I. Brannon, E. L.(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22—137, 1984.
- 16) Labat, K. L. Delong, M. R.,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1990.
- 17) Lennon, S. J.,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196—203, 1988.
- 18) Soyeon Shim, etc,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35—44, 1991.